

당대(唐代) 여성의 이마 치장에 관한 고찰

임 린*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겸임교수*

요 약

본 연구는 강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많은 이민족과 문화적 접촉을 하였던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국적 화장 속 독특한 이마 치장의 내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당대 역사 및 화장풍속에 대한 이론고찰과 당대 벽화, 회화, 도용 등 유물분석을 병행하였다. 특히 당대 벽화는 장안을 중심으로 한 중원, 동서문화의 요충지 둔황이 있는 북방 그리고 남방지역 벽화를 시기적,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자료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마 치장은 벽화 및 시각자료를 통해 당대 화장문화 중 가장 이국적이며 화려한 방식으로 그 유형을 액황, 화전, 발제선 변화, 건류 착용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이마 치장의 형태와 양상을 분석하였다. 액황은 도금불상의 이마에 황칠을 하는 화장법 중 하나이며 방법으로는 평도법, 반도법, 예황이 있었다. 만당 시기로 갈수록 액황의 면적이 확대되었다. 화전은 이마 중심에 점이나 각종 문양을 그리거나 깃털, 금박, 자개 등을 오려 붙이는 것이다. 색상은 청, 홍, 흑, 백, 황, 녹색 등으로 화려하였다. 발제선은 볼록형, 갈래형, 굴곡형, 오목형으로 변화하였다. 볼록형은 이마의 중앙까지 발제선이 내려오면서 둥근 타원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졌다. 관자놀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는 현무를 함께 표현하였다. 갈래형은 앞가르마를 한 발제선이 이마 상부로 내려온 형태이다. 굴곡형은 구름을 그리듯 요철이 있는 발제선을 말한다. 오목형은 완만하게 둥근 오목한 발제선 형태이다. 건류는 말액, 액자, 투액라와 연관되었다. 직사각형의 긴 천을 이마와 두상에 두른 형태이다. 남장 시녀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셋째, 당대 여성 이마 치장의 내적 의미는 종교성, 자율성, 혼종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마 치장이 불교와의 관련성, 여성의 교육과 지위에 따른 자율성, 이질적 문화의 동질화, 현지화를 통한 혼종성과 관련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당대 여성의 이마 치장에 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으며 내적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당대, 이마 치장, 화장문화, 불교, 혼종성

*교신저자: 임린, lynn5651@hanmail.net

접수일: 2023년 8월 29일, 수정논문접수일: 2023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2일

I. 서론

1. 연구목적

당(唐, 618~907)은 강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많은 이민족을 접촉하고 교류하였던 제국이었다. 한(漢, BC 202~AD 220) 이래 개척된 실크로드는 국제도시가 된 당의 수도 장안(長安, 지금의 서안)에 복식, 화장 등 여성 치장을 호사롭게 할 안료, 보석 등을 유통시키고 불교를 전파시켰다.

여성이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얼굴은 대부분 화장을 통해 완성된다. 그중 이마는 얼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시선을 집중시키지만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잘 알려진 관상학에서는 이마를 전체의 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에(Shin, 2003) 이를 훼손하거나 인위적으로 꾸미려는 인식이 없었다. 오히려 맑고 깨끗하며 넓고 편평한 이마를 아름답다고 여겨왔고 넓은 이마를 만들기 위해 이마 가장자리의 머리털을 뽑거나 밀기도 하였다(Hiroto, 2010). 이런 까닭에 당대(唐代) 여성이 이마에 액황(額黃)이나 화전(花鈿)이라는 화장을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며 전후 시대와도 구별된다.

이마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방법은 화장뿐만 아니라 헤어라인(hair line)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제(髮際)의 양상, 이마와 얼굴의 비율, 얇은 직물 등을 이용한 치장이 있었다. 그러나 당대에는 화장에 사용된 색조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화려했던 까닭에 색조 화장을 하는 주요 부분에 연구가 집중되어왔다. 그럼에도 이마 치장은 당대 여성의 화장문화에 있어 가장 다이나믹한 유행과 소멸의 과정을 보여주었고 색조 화장뿐만 아니라 시대와의 관련성 속에서 다각적인 양태와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대 화장문화 연구에서 다

소 소외되었던 이마 치장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당대 화장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한 유물자료로 인해 의미 있는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중국 화장에 관한 통시적 연구(Ahn, 2005; Park & Park, 2009), 당대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Kim, 2010; Lee, 2011; Park & Kim, 2013), 눈썹화장(M. K. Kim, 2009) 등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 화장의 비교연구(Jung, 2018; Lee & Ryoo, 2004; Park, 2010)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마라는 특정 부위 화장이 갖는 특수성, 표현양식,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한 치장의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연구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대 여성의 얼굴 치장에서 특징적 양상을 보인 이마를 중심으로 화장, 발제, 건류(巾類)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당대 이마 치장이 지닌 내적 의미를 분석하여 그 가치를 조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 및 화장문화 전반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또한 당대 고분벽화 및 시각자료를 통해 당대 여성의 이마 치장에 관한 실질적 양상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당대이다. 당은 초당(初唐, 618~712), 성당(盛唐, 713~765), 중당(中唐, 766~835), 만당(晩唐, 836~907)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당의 시대 분류에 따라 시기별 이마 치장을 살핀다.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이마 치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대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채회도용, 회화자료를 함께 살핀다. 주요 연구대상인 당대 고분벽화는 수당 두 왕조의 수도였던 장안을 중심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섬서(陝西), 하남(河南), 하북(河北), 산둥(山東) 일대에 많이 분포한다. 또한 북방지역인 감숙(甘肅), 둔황(敦

煌), 산서(山西), 회족(宁夏 回族) 자치구, 신장 위구르(新疆 吐鲁番) 자치구 그리고 남방지역인 호북(湖北), 광둥(廣東), 충칭(重慶), 절강(浙江) 등에서도 당대 벽화를 볼 수 있다. 당대 벽화고분은 수백기를 헤아리지만 구성과 제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된 것은 백 여기 전후이다(Jeon, 2009). 따라서 장안 인근과 북방, 남방 등 전역에서 발굴된 당대 고분 벽화를 전시도록, 박물관 벽화조사 관련 출판물, 당대벽화전집 등 문헌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문화적 배경

당은 고조(高祖, 566~635) 이연(李淵)이 건국한 이후 300여 년 동안 번영을 이룬 시대였다. 당은 영토가 광활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며 교통이 발달하여 대외 경제문화 교류가 빈번하였다. 남북조시대의 문화를 통합하였고,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의 기틀을 정비하였다. 특히 인도와 서역의 문화까지 통섭하여 동양 문화의 정수를 세계에 알린 문화의 황금기였다. 당의 수도 장안은 인구 백만이 넘는 세계 최대 도시로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실크로드의 기점이었고, 세계 각지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제도시였다(Liu, 2012).

초당은 고조 원년부터 현종(玄宗, 685~762) 원년까지로, 태종(太宗, 598~649) 정관(貞觀, 626~649)의 치(治)로 일컬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당의 3대 황제 고종(高宗, 628~683)의 황후였던 무측천(武則天, 624~705)이 불교를 신봉하여 크게 번성하였다. 아울러 이민족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당 문화에 호풍(胡風)이 강했다.

성당 시기는 현종 개원(開元, 713~741)의 치로 대변된다. 현종은 당의 안정을 위해 불교를 더욱 장려하였다. 그러나 8년간 안사(安史)의 난(755~

763)으로 국가 질서는 물론 문화 전반이 쇠락의 기점을 맞았다.

중당과 만당은 안사의 난 이후로 쇠퇴하는 시기이다. 안사의 난은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 체제가 무너져 권력이 분산되는 계기가 되었고(Lee, 2002), 문화적으로 초당, 성당 시기의 세계주의적 정신과 문화적 개방성이 사라지고 외래의 것보다는 중국 내부의 색채를 강조하였다(Reischauer et al., 1964/1991). 불교를 비롯하여 경교(景敎), 현교(祆敎, 조로아스터교), 마니교(摩尼敎)의 배척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불교는 중국에 전래된 지 800년이나 되었으나 불교를 이방의 가르침으로 간주하여 탄압하였고, 이는 당의 세계적 성격이 쇠퇴하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도교만이 탄압을 면했으며 점차 유교가 복권되었다(Lee, 2002).

당대 불교가 융성하고 이국적 문화로 번영하였던 것은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 교류가 큰 역할을 하였다. 서역은 현재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각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광의적으로는 현 로마까지 이르는 거대범주에 속하는 지역이다. 실크로드를 통해 융성했던 불교는 문인화가들의 사상적 바탕이 되어 회화 구도, 색채의 변화를 이끌었다. 특히 당대 고분벽화는 중국 고분벽화사에서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고분벽화의 주제나 구성이 불교적 사상과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Park, 2019). 고분벽화 화풍은 인도 등 서역의 불교회화 기법을 받아 선묘나 채색에서 입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하였다. 구도에서도 불교 호법신(護法神)이나 공양인을 자주 볼 수 있고, 인동문, 연꽃 등 불교 도상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Chang, 2022).

채색 불상이 조성된 중국 감숙성에 위치한 둔황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중원과 서역을 잇는 교역의 요충지이자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만나는 곳이었다(Lee, 2006). 둔황 막고굴의 채색 불상은 조각과 회화가 결합된 전형적인

양식으로 발전하였고 이전에 비해 색채감이 살아나고 묘사가 정밀해졌다.

불교적 요소로 화려해진 예술 전반의 색감은 실크로드를 통해 안료, 보석, 포도, 석류, 향료, 향장품(Y. Kim, 2009) 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태종은 멀리 로마와도 교류하였기에 이때 들어온 안료는 회화, 벽화, 도기 등 색채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다. 특히 삼채도기(三彩陶器) 문화를 꽃피웠던 당은 녹, 황, 홍, 백, 남, 흑 등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했으며 세 가지 색 이상을 혼용하여 화려하였다(Kim, 2019). 당삼채(唐三彩)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도기 문화의 수준을 말해주는 동시에 화장 및 복식 등 색채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색감각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벽화를 통해 확인되는 인물묘사가 사실감 있는 것은 이러한 안료 유입에 영향받은 바가 컸다.

2. 이국적 화장과 이마 치장

당대에는 여러 분야에서 이국적 양식이 유행하였고 화장문화도 그중 하나이다. 호풍이라고도 했던 이국적 취향은 서역 특히 페르시아 양식을 일컬었으나 당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파미르고원의 동서에 있는 나라와 돌궐, 위구르, 토번(吐蕃, 티베트) 등 서북 여러 민족의 문화를 포함한 이국적 양식을 지칭하게 되었다(Kim, 2003).

당대는 서역과의 교류로 화장품 원료가 되는 연지(胭脂), 자교(紫膠), 나자대(螺子黛), 청대(靑黛) 등이 들어옴으로써 화장문화가 이국적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구지(口脂), 미대(眉黛), 홍장(紅妝), 액황, 화전 등의 화장법(Lee, 2011)은 여러 이민족의 화장법을 차용하여 얼굴 치장을 더욱 이국적으로 만들었다.

당대 이국적 화장으로 구지는 입술을 붉게 칠하는 것이다. 구지는 붉은 꽃잎이나 꽃봉오리 형태로 실제 입술보다 작게 그렸다. 원래 북방 유목 민족의 풍습으로 알려진다(Sugimoto, 1979/1996).

특히 위구르 지역 입술화장이 양 끝을 올려서 그리는 형태인데(Kim, 2013) 이민족의 입술 화장이 당대 여성에게 널리 유행하였다. 미대는 눈썹을 그리는 것으로 청대를 사용하였다. 청대는 인디고(Indigo) 염료로 인도의 특산이며 이란의 풍습으로 전해진다(Kim, 2003). 홍장은 볼 화장을 뜻한다. 홍색 안료를 이용하여 볼을 붉게 화장하는 것인데, 북방에 연지산이 있어 북인(北人)들이 꽃을 이용하여 연지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붉은 연지의 유래가 외래문화임을 알 수 있다(Kim, 2013). 사홍(斜紅)은 관자놀이와 볼 부근에 비스듬하게 훑듯처럼 붉게 칠하는 화장법인데 토번의 화장법으로 알려진다. 장엽(妝靨) 또한 이국적인 볼 화장의 일종으로 양쪽 보조개 부분에 작은 점이나 꽃을 그린 화장법이다.

무엇보다 가장 이국적인 것은 이마 화장이다. 액황은 머리털 언저리 부분을 황색으로 칠하거나 관자놀이에 황색 장식품을 붙이는 방법이다. 액황은 불장(佛粧)이라고도 하는데 불상을 따라 서북 지역에서 시작(Hua, 2008)되어 당대 유행하였다. 화전은 화자(花子)라고도 하며 이 또한 불교의 성행과 관련이 깊다. 보살상에 백호(白毫)를 그리는 것과 같은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Kim, 2003). 또한 인도의 다신론적 세계관과도 연관성이 있다. 화전은 당대 이후에 쇠락하였고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의 연지와 근지 풍습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대 중국 화장은 눈썹, 볼, 입술화장에 집중되었고 이마 화장이 강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언급되는 큰 눈, 흰 피부, 둥근 얼굴, 풍만한 몸매, 붉은 입술, 가는 허리, 풍성한 머리술(Ahn, 2017)처럼 미인의 주요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마는 관상학에서 삼재(三才) 중 하늘로, 넓고 바르며 둥근 이마를 중시하였다(An, 2013). 이는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BC770~BC221)와 제(齊)나라를 거치면서 확립된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과 관련성을 갖는다(Jeon, 2020). 우주를 이루는 원천인 기(氣)를 음양오행으로 설명하면서 이마는 천정(天庭)으로 골격이 풍만하게 일어나거나 솟은 듯이 넓으며 반듯하기가 절벽 같고 양쪽의 머리숱이 풍성하면서 단정하고 깨끗한 것을 좋게 여겼다. 얼굴의 상(相)을 볼 때는 이마에서 귀천이 정해진다고 보았다(Kim, 2017). 따라서 당대 이마 치장은 이국적인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은 당인(唐人)의 세계관 변화를 뜻한다.

특히 인도 최초 문명인 인더스 문명에서는 가르마 중심부 발제를 따라 붉은색으로 그린 신도르(sindhur 또는 sindoor)와 이마 중심에 아이비드(eye-bead)를 한 유물이 발굴되었다(Ahn, 2017). 이마에 붉은 장식을 한 것은 고대 화장 안료가 약제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약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원형 장식인 아이비드는 원형(○)이 우주의 축이며 우주관을 나타내는 기호로(Lee & Chae, 2002) 인도에서 우주 발생의 근원을 점(·)으로 보아 인도 여성들이 이마에 원점의 빈디(bindī)를 표식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는 음양오행설에서 이마는 하늘이자 양(楊)으로 보았던 우주관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유사성 속에서 불교 전래와 서역의 세계관이 당에 유입되어 다양한 이마 화장을 발달시켰을 개연성이 있다. 아이비드는 제 3의 눈으로 신의 보호를 의미하여 금, 동석, 유리, 홍옥수 등 귀한 재료로 장식되었으나 이후 인도에서는 얇고 부드러운 나뭇잎을 여러 모양으로 잘라서 앞이마에 붙이고 파피루스나 구장나무 잎을 오려서 장식하였으며 막대에 붉은색 화장 안료를 묻혀 그리기도 하였다(Ahn & Kim, 2015).

이마 치장은 화장을 하는 것 외에도 발제의 위치와 모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발제선은 얼굴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로 발제의 위치에 따라 얼굴의 균형이 달라져 보인다. 발제는 이마와 머리털이 난 언저리로 헤어라인을 말

하는데 앞이마에 머리카락이 난 부분이다. 이마 치장에 있어 발제의 변화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대에 따른 화장법과 관련성이 있다. 당대의 액황은 발제선을 따라 화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마를 전부 덮었다. 발제선 위치 변화는 아름다운 얼굴 비율의 변화를 뜻하고 이는 당대 미인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고대부터 이마의 발제선은 가지런해야 좋은 관상으로 삼았다(An, 2013). 발제선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앞 머리카락으로 발제선을 꾸미는 것은 당대 이마 치장의 일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당대 이마는 건류로도 꾸며졌다. 이는 당대 부녀의 기마 풍습과 관련되는데, 말을 탈 때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복식 발달에서 기원하였다. 그 중 먹리(霧羅)는 여자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의 쓰개였다. 먹리는 토곡혼(吐谷渾)의 풍습(Kim, 2003)으로 이후 유모(帷帽)로 대체되는데 얼굴을 가렸던 긴 베일이 짧아졌다. 이러한 유모의 흔적이 이마를 치장한 투액라(透額羅)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Shen, 1981). 한편 머리띠로 이마를 꾸미기도 하였다. 띠 형태의 건은 적색과 흰색 등이 있었다. 이는 말액(抹額), 액자(額子) 등으로 불렸는데 실용적 목적과 함께 치장으로 사용되었다. 당대 고분벽화 등을 통해 건류가 이마 치장에 활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III. 당대 이마 치장의 형태와 양상

당대 이마 치장은 액황, 화전, 발제, 건류를 통해 확인된다. 액황과 화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장법의 일환으로 이마 전체에 분을 바르거나 이마 중심에 그림을 그리고 장식품을 붙이는 방법이다. 발제는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여자 얼굴 치장의 방법이며, 당대 발제선의 변화 양상을

통해 이마 치장에 있어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건류는 이마에 두르는 것으로 표식적 기능과 장식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당대 회화 자료에 나타난 이마 치장의 모습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당대 회화와 도용에 나타난 이마 치장.

구분	이마 치장 모습			
액황				
	Figure 1. 이마 · 코. From Li, (2021). p. 85.	Figure 2. 이마. From Zhou & Gao, (1997). p. 75.	Figure 3. 이마. From Li, (2021). p. 109.	Figure 4. 이마 · 귀밑 · 코 · 턱. From Li, X. (2005). p. 301.
화전				
	Figure 5. 원점. From He & Li, (2009). p. 210.	Figure 6. 꽃문양. From Zhou & Gao, (1997). p. 139.	Figure 7. 꽃문양. From Zhaoling museum, (2006). p. 112.	Figure 8. 새문양. From Li, X. (2005). p. 272.
발제				
	Figure 9. 볼록형. From Zhaoling museum, (2006). p. 50.	Figure 10. 갈래형. From Yoogeum museum, (2010). p. 103.	Figure 11. 굴곡형. From Li, (2021). p. 106.	Figure 12. 오목형. From Yoogeum museum, (2010). p. 121.
건류				
	Figure 13. 백색 건. From Zhaoling museum, (2006). p. 136.	Figure 14. 홍색 건. From Zhaoling museum, (2006). p. 195.	Figure 15. 무늬 건. From Shanxi archaeological lab, (1998). p. 45.	Figure 16. 홍색 건. From Li, G. (2005). p. 106.

1. 액황(額黃)

액황은 불교의 용성으로 도금불상의 이마를 모방해 이마에 황칠을 한 것이다(Zhou & Gao, 1997). 『거란국지(契丹國志)』의 기록을 근거로 Zhou and Gao(1997)는 액황이 북방 부녀자들의 풍습이며 불교와 연관되었다고 하였다. 액황이 북방에서 전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Figure 1>의 『북제교서도(北齊校書圖)』가 있는데, 북제 양자(楊子)가 그린 것을 엽립본(閣立本, 601~673)이 다시 그렸다고 전해진다. 이 그림은 북제(北齊, 550~577) 문선제(文宣帝, 526~559)가 556년 국가가 소장한 오경(五經)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북제교서도』에 나타난 여인들은 눈썹 위로 이마 전체와 콧등에 액황을 칠한 모습이다.

당대 중원의 그림에서 액황을 볼 수 있는 자료는 성당 시기에 활약한 장훤(張萱)의 『도련도(搗練圖)』(Figure 2, 3)이다. 『도련도』의 모든 궁녀들은 이마에 액황을 하였다. 『도련도』는 개원 연간의 그림으로 궁녀들이 다림질, 바느질, 비단 절구질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궁녀들은 고개를 하고 빗을 쬔은 중원의 한족 머리 양식(Yim, 2012)에 이마에 액황을 한 모습이 이채롭다. 액황은 성당 시기 매우 성행하였다.

액황의 재료는 문헌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 액황을 아황(鴉黃)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검은 까마귀가 노랑게 보일 정도로 이마를 치장한다는 의미이다. 불상의 황금 장식처럼 금분이 이용되었을 것이나 금은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워 대체품이 발달하였다. 왕애(王涯, 764~835)의 『궁사(宮詞)』에는 소나무 꽃가루로 여인들이 이마에 분칠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Li, 2021). 그러나 회화 속 액황은 흰색으로 보인다. 염료가 세월이 지나면서 변색되거나 탈색된 것으로, 둔황 석굴 벽화의 안료가 백색으로 변한 것과 연관된다(Lee, 2011).

액황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Li(2021)가 평도법(平塗法), 반도법(半塗法), 예황(蕊黃)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평도법은 이마 전체를 황색으로 칠하는 것이고, 반도법은 눈썹 위에 황색 칠을 하고 발제에 다다를수록 얇아지게 물을 더해 그라데이션(gradation) 하는 방법이다. <Figure 1>의 액황이 반도법으로 그려진 것이며 평도법보다 아름다운 치장법이라고 하였다. 예황(蕊黃)은 가장 아름다운 액황의 방법으로 황색 분이 마치 꽃술과 같은 무늬로 표현될 수 있는데, 얇은 황색 판을 만들어 붙이는 형식이다. Li(2021)는 최액(崔液, ?~714)의 『답가사(踏歌詞)』를 들어 예황은 비취에 황색을 발라 붙이는 등 장식물과 같다고 하였다.

액황이 그려진 면적을 보면, 북제 그림 <Figure 1>은 이마와 콧대에 그려졌다. 그러나 <Figure 2, 3>처럼 성당 시기 액황은 발제선을 따라 이마 상부부터 눈썹 위까지 새가 날개를 펼친 형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만당 시기 작품으로 전해지는 『궁락도(宮樂圖)』(Figure 4) 속 여인은 이마뿐만 아니라 귀밑머리를 지나 귀 아래를 감싸고 콧대와 턱까지 액황을 하였다. 액황을 칠한 면적이 당 후기로 갈수록 점차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 화전(花鈿)

화전은 이마에 직접 그리거나 각종 무늬나 점, 깃털, 금박, 자개, 꽃 모양으로 오려 붙였다. 불에도 이마와 같은 장식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마 장식을 화전, 불 장식을 염전(鬘鈿)으로 구별하였다.

화전은 진대(秦代, BC 221~BC 206) 이미 시작되어 당대에 이르러 매우 성행하였다(Li, 2021). 화전의 유래에 대해 Zhou and Gao(1997)는 진시황이 신선을 좋아하여 소선계(梳神鬋)를 하고 항상 궁녀에게 오색화자(五色花子)를 붙이게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남북조시기 송(宋, 420~479) 무제(武帝, 363~422)의 딸이 치마 아래 누워 있는데 매화

꽃이 이마에 떨어져 매화꽃 무늬가 물들었고 3일을 씻어도 없어지지 않아 궁녀들이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설, 무측천 시기 여자 재상이라는 별칭을 얻고 권세를 누렸던 상관완아(上官婉兒, 664~710)가 얼굴의 점을 가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이 전해진다고 하였다. 화전의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으나 무측천 시기는 불교가 매우 융성했던 때로 불교와의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본다. 화전은 불교가 전래되었던 서역의 호속(胡俗) 화장으로 알려지며,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Sugimoto, 1996).

화전의 문양은 <Figure 5>처럼 간단하게 원으로 찍어 표현하기도 하며, 꽃, 새, 식물 문양 등을 그리거나 붙였다. 꽃은 모란, 연꽃, 국화가 많았고 새와 구름처럼 식물, 동물, 자연의 형상을 변형하거나 그 형태를 혼합하여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화전의 가장 간단한 문양은 단지 작은 점인데 이는 인도 여성의 것과 비슷하다. <Figure 17>은 초당 시기 둔황 벽화(邵玄江 墓) 속 보살로 이마 한 가운데 원형 장식이 보인다. 보살은 화려한 보관과 아름다운 의상으로 치장한 모습이다. 부처의 도상뿐만 아니라 불교 관련 인물도, 회화, 벽화, 도용 등을 통해 원형 화전이 당대 얼마나 성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igure 18>은 가로선의 선형 화전이다. 초당 시기 양온(楊溫, 568~639) 묘 벽화에서 보이는 선형 화전(Figure 22)은 사홍과 같은 모양으로 이

마에 붉은색의 흉터처럼 그려졌다. 이는 화전의 초기 형태이며 사홍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화전의 가장 흔한 문양은 꽃잎이나 꽃을 그린 형태이다. Li(2021)는 화전 문양으로 매화문이 가장 유행하였다고 하였다. 매화 화전은 액황을 한 후 청색으로 그려진 <Figure 2, 3>과 같은 형태로 생각된다. 연꽃도 많이 활용되었는데 <Figure 19>는 연꽃 위에 앉은 인물을 금박으로 만든 화전이다. 금박으로 만든 화전은 <Figure 20>처럼 봉황을 마주 보게 배치한 형상으로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붙이는 방식의 화전은 금박뿐만 아니라 흑광지(黑光紙), 물고기 뼈(魚腮骨), 물총새(翠鳥)의 비취털 등으로 만들어졌다. 화전의 다양한 재료는 자연스럽게 여러 색상의 화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Zhou & Gao, 1997). 붉은색으로 단순하였던 화전의 색감이 재료에 따라 황, 흑, 백, 청색 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당대 화전의 문양과 색감은 초당 시기 벽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Figure 21>은 둔황 329굴(楊臣 墓) 비천과 연화문이 있는 화려한 천장화로 연꽃과 구름이 어우러져 화려한 색감이 조화를 이룬다. 위귀비(韋貴妃, 597~665) 묘 벽화의 당초문(Figure 22), 장락공주(長樂公主, 621~643) 묘 벽화의 연꽃문(Figure 23), 의덕태자(懿德太子, 683~701) 묘 벽화의 모란문(Figure 24)과 운문(Figure 25) 등이 이러한 색상으로 장식된 문양이다. 즉 <Figure 2, 3>의 매화문을 그린 청색 화전, <Figure 5, 6, 7, 8>의



Figure 17.
둔황벽화 보살.
From Dongah gallery.
(1994). p.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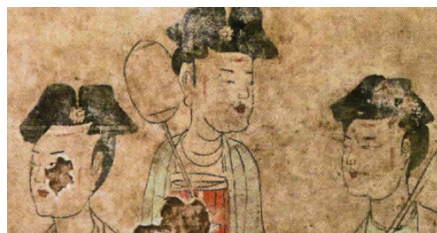


Figure 18.
선형 화전.
From Zhaoqing museum, (2006).
p. 35.



Figure 19.
금박 화전.
From Zhou & Gao.
(1997). p. 137.



Figure 20.
금박 화전.
From Zhou & Gao.
(1997). p. 137.



Figure 21. 둔황벽화 천정.
From Dongah gallery.
(1994).
p. 44.



Figure 22. 당초문.
From Zhaoqing museum.
(2006).
p. 142.



Figure 23. 연꽃문.
From Zhaoqing museum.
(2006).
p. 45.



Figure 24. 모란문.
From Shanxi history
museum. (2002).
p. 46.



Figure 25. 운문.
From Shanxi history
museum. (2002).
p. 56.

당초문, 운문을 그린 적색 화전, <Figure 19, 20>의 연꽃문과 봉황문 화전 등이 당대 고분벽화의 문양과 색감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발제(髮際)

머리카락이 나는 부위와 이마를 구분하는 발제선이 어디냐에 따라 이마의 면적이 결정되며 얼굴의 전체 비율이 달라진다. 얼굴의 크기와 형태를 좌우하게 되는 발제선의 변화는 당대 미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얼굴 비율은 시대의 미인을 인식할 때 중요한 척도로 보통 발제선에서 눈썹, 눈썹에서 코끝, 코끝에서 턱 끝을 각각 3분의 1씩 나눈 1:1:1을 균형 잡힌 평균 비례로 본다 (Lee & Lim, 2012).

아름다운 얼굴의 균형과 형태를 바라보는 관점은 관상학을 통해 더욱 체계화되었다. 남북조시대 발달한 관상학에서 이마는 상처, 점, 사마귀, 꺼진 부분이 있으면 운세가 감소하며, 정중앙을 중심으로 요함(凹陷)하지 않고 맑고 어둡지 않으며 옆모습은 약간 볼록한 형상을 좋게 본다. 또한 이마는 하늘의 뜰, 하늘의 창고라 하여 많은 궁(宮)이 모여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좁은 이마는 고생이 많고, 노력은 하나 공을 이루지 못한다. 반면 넓은 이마는 일찍 출세하여 관직의 영화가 지속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발제선이 어지러운 모양은 도덕심과 정의로운 측면에서 약하고 과격한 성격이 있어 인생이 평탄하지 못한다(Lee & Lim, 2012)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대 이마 치장은 상당한 의외성이 있다. 이마는 하늘이며 넓고 맑아야 하는 인식으로 바라본다면 <Figure 26>과 같은 형태가 부합할 것이다. 이 도용은 초당 이전의 것으로 이마가 흰히 드러나고 반듯하며 넓은 모습이다. 그러나 당대 여성은 이마 전체에 액황을 하거나 정중앙에 화전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발제선이 아래로 내려와 이마를 좁게 하고 굴곡선을 보이는 등 변화를 보였다.

당대 발제 유형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볼록형, 갈래형, 굴곡형, 오목형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이사마(李思摩, 583~647) 묘와 단간(段間) 묘 벽화 속 시녀는 발제선이 둥근 타원으로 볼록하게 내려온 형태이다(Figure 9). 거의 이마의 중앙까지 발제선이 형성되어 좁은 이마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볼록형 발제선을 한 경우 관자놀이 부분에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현무(Figure 27)가 함께 있다. 모발을 자연스럽게 정리한다면 현무는 대체로 남성에게 나타난다(Lee & Lim, 2012). 볼록형 발제선과 현무는 서위(西魏, 535~556) 둔황벽화(閼玉昆墓) 중 석가 보불(寶佛)에서 볼 수 있다(Figure 28). 따라서 당대 여성의 현무 장식은 인위적으로 만든 이마 치장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유형으로 갈래형이 있다. 앞가르마를 한 발제선으로 역시 이마 상부를 상당히 가린다. 주로 여아의 머리 모양인 쌍계(雙髻)를 할 때 갈래형 발제선(Figure 29)을 볼 수 있으나 <Figure 10>과



Figure 26. 수당 여인.
From Yooguem museum.
(2010).
p. 82.



Figure 27. 현무.
From Zhaoing museum.
(2006).
p. 49.



Figure 28. 석가보살.
From Dongah
gallery. (1994).
p. 32.



Figure 29. 쌍계 사녀.
From Li, X.
(2005).
p. 297.



Figure 30. 문수보살.
From Dongah gallery.
(1994).
p. 64.

같이 채회여용에서도 확인된다. 중원의 여인들이 갈래형 발제 치장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굴곡형 발제선은 구름을 그리듯 오철이 이마 상부를 장식한다. <Figure 11>의 『치성광불병오성도(熾盛光佛并五星圖)』 중 태백금성(太白金星) 인물이 굴곡형 발제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중당 시기 둔황벽화(紀永元 墓)에 그려진 문수보살(文殊菩薩)에서도 확인된다(Figure 30).

오목형 발제선은 볼록형과 대비된다. <Figure 12>의 타마계를 한 채회여용이 완만하게 둥근 오목한 발제선을 하고 있다. 오목형 발제선을 한 인물은 이마가 매우 좁게 표현되었다. 성당 이후 만당까지 오목형 발제는 가장 오랜 기간 유행하였다. 장현의 『궈국부인유춘도(虢國夫人遊春圖)』, 투루판(吐魯蕃, Turpan) 아스타나(阿斯塔那, Astana) 묘에서 발굴된 『복희여과도(伏羲女媧圖)』의 인물 등에서 많은 사례의 오목형 발제 양식이 확인된다.

4. 건류(巾類)

당대 이마 치장과 관련한 건류는 말액, 액자, 투액라와 관련된다. 용어에는 모두 이마를 뜻하는 한자어 액(額)자가 있다. 이러한 건류는 간단한 형식으로 가로로 펼쳐 이마를 가리고 꾸몄다. 직사각형의 천으로 두상에 둘러 뒤에서 묶거나 얇은 망사로 이마를 가렸다. 색상은 적색, 백색 등이 보인다.

<Table 1>에 제시한 건류의 유형을 보면 <Figure 13, 14, 15>의 형태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ure 13>은 위귀비 묘 벽화의 남장 시녀이다. 이마에 백색 건을 두르고 있다. 직사각형의 좁고 긴 천으로 앞이마를 두르고 더 가는 두 가닥의 끈을 양 끝에 달아 두상 뒤로 돌려 고정하였다. <Figure 14>에서 보이는 건류는 안원수(安元壽, 607~683) 묘 남장 시녀의 모습이다. 안원수는 서역 안국(安國)의 후손이다. 앞의 건류와 형식이 비슷하나 색상이 홍색이고 양쪽으로 연결한 가는 끈이 하나로 되어 있다. <Figure 15>는 당 태종의 딸인 신성공주(新城公主, 634~663)의 묘 벽화에 그려진 남장 시녀이다. 이 시녀의 건은 붉은색 바탕에 흰색 무늬가 있어 독특하다. 한 가닥의 가는 끈이 중앙의 직사각형 천 양 끝에 연결되어 뒤로 묶여 있다. 이렇듯 유사한 이마 건류가 보이는 세 그림(Figure 17~19)은 한족과 호족 고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원령포삼(圓領袍衫)을 입은 남장의 시녀가 이마에 착용하고 있다. 이 건류를 Zaoling museum(2006)은 말액으로 설명하였다.

말액은 머리에 두르는 두건 형태의 쓰개로 말액이라는 용어는 당에서 처음 사용되었다(Kang & Jeon, 2005). 그런데 말액은 주로 시위 무사들이 황색, 적색, 흰색 등의 천으로 머리를 덮는 형식이며, 당대 여성이 착용한 말액은 두건 양식이 아닌 띠 형태이다. 이와 관련해 말액은 띠 형식(帕)에서 발전하여 두건으로 변모하였다는 의견(Kang & Jeon,

2005)과 두 양식이 형태 및 착장방식이 상이하여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견해(M. J. Kim, 2009)가 발해 정효공주(貞孝公主, 757~792) 묘 시위 무사의 말액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Zaoling museum(2006)이 띠 모양의 건류를 말액이라 한 것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Figure 16>은 건 형태이다. 이는 앞의 세 그림과 형태가 다소 상이하나 간단한 건류로 뒤에서 묶었다. <Figure 16>은 둔황 225굴 공양인을 그린 벽화로 건의 폭이 앞의 세 그림보다 넓고 긴 띠 하나로 되어 있다. 착용 양상도 앞의 세 건류에 비해 이마 노출이 많고 두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여성이 천을 이마와 두상에 두르는 형식은 원대(元代, 1271~1368) 영락궁(永樂宮)의 여인이 착용한 사례로도 확인되는데 이런 건은 신분이 낮은 계층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귀족부녀는 하지 않았으며 이를 액자라고 하였다(Zhou & Gao, 1997).

한편 투액라는 유모 앞으로 늘어뜨렸던 얇은 천이 짧아져 이마를 가리게 되면서 생겨난 이마 치장품이었다. 이는 모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식품으로도 활용되었다. 성당 시기 둔황 130굴(趙俊榮 墓)에서 발굴된 『도독부인도(都督夫人圖)』(Figure 31)에는 이마에 투액라를 한 두 여인이 있다. 투액라는 말총으로 만든다고 하였다(Ma, 2009). 투액라는 재질이 가볍고 얇아서 이마의 주

름까지도 잘 보였다(Zhou & Gao, 1997).

IV. 당대 여성 이마 치장의 내적 의미

당대 여성의 이마 치장 형태와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이마 치장에 영향을 미쳤던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당인은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된 불교적 사고, 자율적 분위기, 이국적 문화에 심취하였고 이전 시대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하고 다채로운 화장과 이마 치장을 만들어냈다. 특히 우주에 대한 인식론적 체계인 음양오행설에서 나아가 도교, 유교 등 체계화된 종교 위에 불교가 성행함으로써 당인의 세계관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다양한 이민족과의 접촉은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어느 시대보다 여성에게 사회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다. 또한 당과 서역의 융성한 문화접변으로 당 시대만의 이질적이고 독특한 이마 치장을 유행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대 여성 이마 치장의 내적 의미를 종교성, 자율성, 혼종성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1. 종교성

진한(秦漢) 이후 널리 퍼져 있었던 도교적 윤리관은 권선(勸善)에 대한 관념으로 선을 따르고 악을 제거하라는 통속적인 도덕교화의 성격이 강하다. 도교적 사상은 현실을 탈피하고 속세를 벗어나 신선 세계에서 노닐며 수련으로 득도하고 선인(仙人)이 되는 개념(Choi, 2013)으로 설명된다. 도교에서는 현실에서 욕망을 좇지 않으며 사람에 대한 도리와 예를 다하는 것을 도덕적 이상향으로 꿈꾼다.

도교와 함께 기원전 136년 유학의 국교화가 이



Figure 33. 투액라.
From Dongah gallery. (1994).
p. 59.

루어졌을 만큼 고대 중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유교는 전통적인 예악(禮樂) 문화의 대표성을 갖는다. 한대에는 유학을 정치 제도화하여 예법이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였다. 공자(孔子)를 비롯한 맹자(孟子), 순자(荀子) 등이 유학을 통해 각종 도덕 규범과 자기 수양, 치세를 실천하는 규범과 원칙을 제시하였다(Lou, 1998). 도덕적 예의를 실천하는 윤리관념이 남북조시대 분열되고 어지러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도교적, 유교적 도덕관에 대한 복식은 절제미를 숭상하였다. 도덕성에 기반한 성적인 순수성과 남성에 대한 경제적 종속은 신체의 은폐, 활동의 구속, 무장식성과 단순함으로 귀결된다(Yeon, 2012). 당대 이전 여성의 화장문화 및 이마의 치장이 단조롭고 수수했던 것은 이러한 종교적 도덕관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한편 불교는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통하여 인간의 평등을 깨치고 실천적 수행과정으로 모든 만물이 성불(成佛)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갖고 있다. 기원전 2세기경 인도를 통해 전래된 불교는 당대 가장 크게 융성하였다. 당대 불교는 서민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보편화, 대중화되었고 전통문화와 융합되었다(Lou, 1998). 불교의 평등적, 통합적, 포용적 행보는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 여러 문화를 교류하며 번영기를 이끈 당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렸다.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은 여성의 치장에 있어서도 타국의 독특한 양식을 수용하고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정갈하고 바르게 정리하였던 이마 치장이 다채로워졌던 것은 불교의 영향이 컸다. 액화는 경건과 정성을 의미하는 불상의 도금을 모방한 것이며, 화전은 기원전 2세기경 인도의 여성들에게 나타난 이마의 원형장식 및 홍점의 화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인도의 토속신앙에서 지속되었던 이마 치장은 불교가 발생한 이후 불상 백호로 표현되었는데(Mori, 1982) 백호는 원래 이마 가운데에 생기

는 흰 털로 불상에는 구슬을 붙여 여래(如來)를 상징한다고 한다(Park, 2010). 백호는 대승불교에서는 광명을 비춘다고 하여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보살상에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초기 불상에서부터 작은 원형을 도드라지게 새기거나 수정 같은 보석을 끼워 넣기도 했다(Park, 2012). 화전뿐만 아니라 발제선 중 볼록형과 현무 특성, 굴곡형은 고분벽화 및 불상 등에서 부처의 머리 양식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복제 서현수(徐顯秀) 묘비거도(備車圖) 인물은 발제선 뿐만 아니라 서역인의 구불구불한 머리 형태가 반영되어 그려져 있다. 당시 서역인의 머리 양식은 불상과 연관성이 있으며 당대 여성의 발제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 동서 종교의 전파와 접변이 이마 치장에 반영된 것은 자명해 보인다.

2. 자율성

당대 문화 전반에 흐르는 여성의 자율적 사고는 전통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시대적 환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지위는 교육에 영향받은 바 크다. 최초의 여황제였던 무측천의 등장은 여성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는 커다란 발판이 되었는데, 무측천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 태평공주(太平公主, 655~713), 상관완아, 장손황후(長孫皇后, 601~636) 등 여성 정치인이 많아지면서 궁정 내부의 관리와 사무에 배치할 궁녀 관리기구가 요구되었다. 궁관제도 하에 궁녀의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졌다(Zhao, 2023).

궁녀의 교육은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적 인식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궁녀의 역할이 커지면서 활동적이며 기능적인 호복 착용이 선호되었다. 이마 치장에서 건류를 한 시녀의 남장에서 확인되듯, 이 시기 궁중에서는 궁녀가 원령포삼, 착수번령포(窄袖翻領袍) 등을 입고 복두, 말액 등을 한 모습으로 궁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림 당대는 여인의 남장 풍속이 매우 유행하였던 시기이다(Chen & Xu, 2002). 남장 풍속에 대해 당대 유숙(劉肅)이 권계(勸戒)에 관한 기사를 모아 엮은 「대당신어(大唐新語)」에는 천보(天寶, 742~756) 연간에는 상류 부인들이 남자 복식을 입고 가죽신에 채찍을 들고 모자를 썼기 때문에 내외의 옷이 동일하였다. 이렇듯 초당, 성당 여성들은 유행을 좇고 신기한 풍습을 추구하였다(Zhou, 2008). 남장 풍속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련 없이 궁중 시녀 사이에 인기를 끌었다. 이는 교육을 받은 당대 여성의 지위 신장과 관련성이 높으며 이마의 건류 치장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유행하였던 남장의 결과물이라 하겠다.

사가의 교육도 더욱 확대되었다. 당시(唐詩)가 크게 유행하였던 때 적지 않은 여성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다. 서화와 음악에서도 여성의 고상한 정취를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상류층 뿐만 아니라 서민 부녀자들도 효경(孝經), 논어(論語) 등 계몽서 외에 예술 교육이 확대되었다(Zhao, 2023). 이에 따라 당대 여성은 개가가 허락되었고(Kim, 2015), 자주적 여권인식, 자유로운 애정 생활, 성행하는 기방 문화 등(Lee, 2011)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었다.

교육에 따른 여성의 성장과 함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당대 여성의 치장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보상받았다는 심리적 자기만족과 여성성을 어필하고 욕망을 표출할 수 있게 보다 과감해져 갔다(Yim, 2019). 욕망, 과시, 만족을 추구할 수 있었던 자유스러운 사회 분위기는 다채로운 치장문화를 꽃피게 하였다. 이마 치장 중 가장 화려했던 액황과 화전의 여러 꾸밈, 화려한 색상, 이전과 확연히 다른 볼록형, 굴곡형, 갈래형, 오목형 등 다양한 발제선, 건류 등 이마 치장의 새로운 트렌드는 복식문화에서 괄목할 만한 여정이 되었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대체로 나타나지 않고 정갈함을 추구하였던 이마 치장이 어느 시대보다 화려하

였던 것은 자유로웠던 당대 여성의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혼종성

혼종성은 생물학적인 기원을 갖는 말로 이질적인 문화가 섞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혼종성은 이미 성립된 자기와 타자의 이항 대립에 근거한 혼합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출을 제시하고 유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개념이다(Kim, 2014).

당대는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의 최대 전성기였다. 장안을 중심으로 물자가 집중되었고 서역인들은 장안으로 몰려들었다. 장안의 외국인이 총 인구의 약 2%에 이르렀다(Lee, 2008). 당인들에게 외래인들은 생소한 대상이 아니었고 익숙한 존재였다. 특히 당 태종은 초당 시기 중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운 이민족에 매우 친화적이었다(Lee, 2012). 이들이 가져온 이국적 문화인 호풍의 유행이 당대에 대단하였던 연유이기도 하다.

당대 문화 혼종성이 넘쳐났던 시기 한족과 호족의 이질적 문화의 경계가 무너졌다. 중국에 유입된 불교는 현지화된 선종(禪宗)이 되었다. 인도의 대승, 소승불교의 내용을 보존하면서도 도교적, 유교적 세계관이 융합되었다. 불교가 대중의 현실에 파고드는 가운데 도교적 세계관이 당대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자리잡았다. 『궁락도』에는 궁중 여성들이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쾌락적인 모습 속에서 흐트러진 머리 모양의 타마계(墮馬髻)를 하고 나른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말에서 떨어져 느슨하게 묶인듯한 머리 모양은 풍요로운 세상 속 안락함, 무료함, 나태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인식(Ma, 2009)을 대변하다. 불교와 도교적 세계관이 혼종하는 장면이라 할 것이다.

이마 치장에서 보면 액황이 불상의 도금과 연관되었다고 하나 귀밑머리 아래, 콧대, 턱까지 확

대되어 표현양상이 현지화되어 갔다. 액황에 사용된 재료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소나무 꽃가루를 사용하였다. 화전은 인도의 민간신앙과 불교가 습합된 양상으로 당의 문화에 유입되었지만, 화전에 사용된 문양은 더 이상 인도의 것이 아니었다.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도교적 문양인 구름 그 밖에 봉황, 당초문 등은 당의 문화가 투영된 것들이었다. 붉은색 원점을 찍었던 인도식 화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해졌다. 기마 풍속에 따라 호복을 입고 남장을 하면서 이마에 건을 착용하는 것도 이마 치장의 혼종성을 보여준다.

당대 여성의 새로운 치장문화는 이전과 다른 미인상을 탄생시켰다. 중국 최초의 문학작품인 「시경(時經)」의 석인(碩人)에는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장공(莊公, 794~731년)의 딸로 위(衛)나라로 시집가 불우한 삶을 산 장강(莊姜)의 빼어난 용모 중 매미같이 반듯하고 넓은 이마를 아름답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마 발제선의 변화로 당대 여인은 이마가 매우 좁았다. 좁은 이마는 작은 얼굴을 만들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제선의 변화로 생긴 작은 얼굴은 통통한 아래턱과 조화를 이루어나타났다. 당대 미인은 이전 시기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허리의 몸매가 아니라 양귀비(楊貴妃)로 대표되는 풍만한 미인상으로 바뀌었다(Min & Jung, 2015). 당대 벽화 및 회화, 도용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형은 낮은 발제선 아래 턱선이 넓은 후덕한 인상이다. 이국적 문화를 통해 나타난 혼종성이 이마 치장을 통해서도 새로운 미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당대 문화적 특성이 여성의 얼굴 치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피고, 동아시아 여성 화장에서 소외되었던 이마 치장이 당대 발달

한 이유와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당대 이마 치장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양상과 특성을 살펴 내적 의미를 조망해 보았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 태종은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민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로 인해 펼친 이민족 친화 정책은 당의 강건한 국력과 문화적 융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의 문화적 다양성은 실크로드를 따라 유입되는 물질적, 사상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고, 특히 안료, 보석, 불교 등이 문화예술 전반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당대 회화의 색채가 화려해지고 당삼채가 발달하면서 화장문화가 발달하였다. 서역으로부터 들어왔던 연지, 자교, 나자대, 청대 등이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켰고 이국적인 문양을 얼굴에 그려 넣는 등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불교의 유입은 액황, 화전을 유행시켰고, 불상이나 호인의 곱슬머리를 표현한 발제선 변화, 호풍에 따른 호복 선호와 남장 풍습으로 이마 건류 착용이 있었다고 보았다.

둘째, 이마 치장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액황은 도금불상의 이마에 황칠을 하는 화장법 중 하나이며 평도법, 반도법, 예황 등으로 다양해졌다. 만당 시기로 갈수록 액황을 칠한 면적도 확대되었다. 화전은 이마 중심에 점이나 각종 문양을 그리거나 깃털, 금박, 자개 등을 오려 붙였다. 색상은 청, 홍, 흑, 백, 황, 녹색 등으로 당대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려해졌다. 발제선은 볼록형, 갈래형, 굴곡형, 오목형으로 변화하였다. 볼록형은 이마의 중앙까지 발제선이 내려오면서 둥근 타원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졌다. 관자놀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는 현무를 함께 표현하였다. 갈래형은 앞가르마를 한 발제선이 이마 상부로 내려온 형태이다. 굴곡형은 구름을 그리듯 요철이 있는 발제선을 말한다. 오목형은 완만하게 둥근 오목한 발제선 형태이다. 건류는 말액, 액자, 투액라와 연관되었다. 직사각형의 긴 천을 이마와 두상에 두르

거나 얇은 천으로 이마를 가린 형태이다. 남장 시
녀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셋째, 당대 여성의 이마 치장이 갖는 내적 의미
는 종교성, 자율성, 혼종성으로 분석하였다. 종교성
은 진한 이후 널리 퍼져 있었던 도교적 윤리관 및
유교의 예법이 당 이전까지 여성에게 신체의 은폐,
활동의 구속, 무장식성과 단순함을 요구하였으나,
무측천 이후 불교가 서민의 생활에 파고들며 보편
화, 대중화되었고, 이마 치장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
다. 불상과 관련된 화장, 발제선 변화 등이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자율성은 당대 여성의 교
육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여성 지위 향상 및 인
식의 변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무측천뿐만 아니
라 많은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였던 성당 시기 궁녀
의 교육이 활발하였고 이로 인해 기능적이며 활동
적인 호복 착용이 인기를 끌었다. 남장 풍속에 따
라 여성도 남성의 관모처럼 두상의 쓰개를 갖추었
는데 그 가운데 이마를 치장하는 건류가 발달하였
다고 보았다. 사가의 교육도 활발해져서 여성의 개
가, 자율연애가 가능해졌고 여성의 욕망, 과시, 만
족을 표현할 수 있는 치장에 집중되었다. 화려한
색감의 이마 화장, 다양한 발제선 변화가 이와 연
관되었다고 보았다. 혼종성은 당대 이마 치장이 이
질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양식으로
재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액황의 면적이
확대되는 양상이나 액황 재료의 현지화, 화전의 다
채로운 문양은 불교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당의 치
장 문화로 거듭났음을 보여주었다. 화전 문양은 불
교적, 도교적 도상이 혼용되었고, 반듯한 발제선
에서 요철이 있는 굴곡형으로 변화를 수용하였다. 그
러면서 풍만한 얼굴형을 새로운 미인상으로 탄생
시켰다. 당대 이마 치장은 이질적 문화의 모방, 동
질화에서 나아가 진보하는 혼종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당대 여성의
이마 치장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비록 연구의 진행이 시각자료에 의존했다는 한계

점이 있으나, 이마 발제선 변화, 남장과 건류 착용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후행 과제로 남기
며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길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I. H. (2005). A study on the women's makeup culture in ancient Chin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1(2), 61-72.
- Ahn, I. H. (2017). The aesthetic universality of makeup by evolutionary psychological theory: Focusing on the origin of ancient civilizations in four are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3(1), 323-335. doi:10.18208/ksdc.2017.23.1.323
- Ahn, I. H., & Kim, S. J. (2015).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makeup and ancient beliefs of the Indus valley civi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1(4), 381-391.
- An, E. H. (2013). *A study of the physiognomy in the beauty based on the pattern*.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Chang, X. J. (2022). *A study on the painting of ancient tombs in Shanxi province of northern dynas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osuk University, Wanju.
- Chen, G. H., & Xu, J. J. (2002). *中国服饰通史* [General history of Chinese clothing]. Ningbo: Ningbo Publishing.
- Choi, W. (2013). A study on the taoistic and reclusive quality in painting of the late Yüan and the early Ming dynasties. *Daegu Sahak*, 111(-), 117-140.
- Dongah gallery. (1994). *The great Dunhuang mural painting*. Seoul: Dongah gallery.
- He, X. L., & Li, Q. Q. (2009). *中国墓室壁画史* [History of Chinese tomb mural painting]. Beijing: Higher Education Publishing.
- Hiroto, M. (2010). *미인의 탄생* [Birth of a beautiful woman] (Song, T. U., Trans.). Seoul: Neomer Books.
- Hua, M. (2008). *Cultural China series 5: Chinese clothing* (Kim, S. S., Trans.). Seoul: Geaga Books.
- Jeon, D. Y. (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ve elements and physical types in eastern and western physiognomy.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6(2), 241-258. doi:10.33563/KS CIA.2020.6.2.13
- Jeon, H. T. (2009). Tomb murals of Chinese Han to Tang and regional culture.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33(-), 155-202.
- Jung, H. Y. (2018). A study on the traditional powder make up culture of Korea, China, and Japan.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12(3), 87-105. doi:10.22649/JBAM.2018.12.3.87
- Kang, S. C., & Jeon, H. S. (2005). The study on the Marek(抹額).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5(5), 78-86.
- Kim, E. K. (2019). A study on the change and meaning of the production and export region of lead-glazed stoneware of the Tang dynasty. *Journal of oriental art history*, 8(-), 121-152. doi:10.22978/aarth.2019.8..121
- Kim, J. Y. (2010). *A study on women's facial make-up during the Tang dynas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K. H. (2017). *A study of physiognomy on 『Injeong (人政)-cheukinmun(測人門)』 by Choi, hangi*.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Kim, M. H. (2013). *Aesthetic consciousness represented in the make-up culture of Tang dynas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M. J. (2009). A refutation on the view of Parhae Marek's origin as from Kokury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5), 180-201.
- Kim, M. K. (2009). *A study on the eyebrow make-up Chinese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H. (2003). *호북 실크로드의 복식* [Hu clothing: Costume on the silk road]. Seoul: Minsokwon Publishing.
- Kim, S. W. (2014). Notes on hybridity and cultural identity: Reading Brazil 'Tropicalia' music. *Philosophy and Culture*, 28(-), 133-155.
- Kim, Y. J. (2009). *실크로드 길위의 역사와 사람들* [History and people on the silk road]. Seoul: Sakyejul Publishing.
- Kim, Y. M. (2015). A study of costumes depicted in nomadic figurines from the Tang dynasty.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8(1), 65-79. doi:10.16885/ jktc.2015.2.18.1.65
- Lee, A. R. (2011). *A study on the culture of incense cosmetics in the Tang peri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 Lee, B. U. (2002). A change of the character in Tang buddhist thoughts. *Journal of Chinese Studies*, 15(-), 81-101.
- Lee, E. I., & Chae, K.-S. (2002). A Study on the spirit in Indian costume.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5(1), 85-98.
- Lee, H. L. (2006). *Study on polychrome buddhist sculptures of Dunhuang Mogao ca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bang University, Seoul.
- Lee, H. W. (2012). Multi-cultural society of Tang empire through Zhao mausoleum of emperor Taizong.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1(-), 223-252. doi:10.17790/kors.2012..41.223
- Lee, J. Y., & Lim, H. K. (2012). A case study on hairline makeup in historical TV dramas as a method of expressing character's personality: Focusing on the characters king Geunchogo and Gyebac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2(2), 101-114.
- Lee, J. W. (2008). A study on the image of Huji(胡姬) in Tang poetry.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27(-), 7-41.
- Lee, Y. H., & Ryoo, K. R. (2004). The bearty culture research [1]: The beauty make-up's origin and the ancient Korea & China make-u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0(4), 50-62.
- Li, G. Z. (2005). *Magnificent frescos from the great Tang dynasty*. Shanghai: Chinese Shanxi Travel Publishing.
- Li, X. M. (2005). *A study of Tang tomb murals*. Xian: Shanxi Renmin Art Publishing.
- Li, Y. (2021). *脂粉春秋: 中国历代妆饰* [Chinese cosmetic decoration]. Beijing: China Textile Publishing.
- Liu, Z. F. (2012). *신라의 당 문화 수용과 그 변용*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Silla's Tang cul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ou, W. L. (1998). 중국의 불교와 유교 [Buddhism and confucianism in China]. *Bulgyo-Yongu*, 15(-), 55-101.
- Ma, D. Y. (2009). *云鬓凤钗* [Women with hair bun and wind-shaking hair ornament]. Jinan: Qilu Publishing.
- Min, J. S., & Jung, E. J. (2015). Images of beautiful women represented in traditional Korean and Chinese poem and picture. *The Eastern Art*, 29(-), 28-59.
- Mori, Y. (1982). *シルクロードの化粧史* [Silk road makeup history]. Tokyo: Rokkoku Publishing.
- Park, A. R. (2019). The wall paintings and the relief sculptures of the Sui-Tang tombs at Guyuan and the Tang tombs at Yanchi in the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China. *Journal of oriental art history*, 8(-), 93-119. doi:10.22978/aarth.2019. 8..93
- Park, J. A. (2012). *Comparative analysis on beauty culture depending on religious rules in Ind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K. M. (2010). *A study of make-up cultures in Korean and Chinese figure pain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 University, Busan.
- Park, M. H., & Kim, M. H. (2013). Cremation culture observed in remains and drawings from Tang dynasty: Focused on makeup on eyebrow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9(1), 65-76.
- Park, O. R., & Park, K. M. (2009). A study of ancient make-up trends in Chinese portrait painting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3), 799-807.
- Reischauer, E. O., Craig, A. M., & Fairbank, J. K. (1991).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Kim, H. G., Jeon, Y. M., & Yoon, B. N., Trans.). Seoul: Euljoo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64)
- Shanxi archaeological lab. (1998). *陕西新出土唐墓壁画* [Newly excavated murals of Tang tombs in Shanxi province]. Chongqing: Chongqing Publishing.
- Shanxi history museum. (2002). *A treasury of mural paintings in mausoleums of the Tang dynasty: Mural paintings in the mausoleum of prince Yide*. Beijing: Wenwu Publishing.
- Shen, C. W. (1981). *中国古代服饰研究* [A study on ancient Chinese clothing]. Shanghai: Shanghai Bookstore & Publishing.
- Shin, S. H. (2003). *A study on the make-up color and facial shape: Focusing on the physiognomy in the orient and west*.

-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Sugimoto, M. (1996). *東洋服裝史論考: 中世編* [A study on the history of oriental clothing: The middle ages] (Moon, K. H., Trans.). Seoul: Kyungchun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 Yeon, H. W. (2012). A study for aesthetic basis of dress art: A semiotic aesthetic application from the feminist point of view.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Phenomenology*, 53(-), 71-104.
- Yim, L. (2012). A comparative study on ancient Gage on mural paintings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7), 778-789.
- Yim, L. (2019). Gache(加髻) Culture and position of east asia wome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Human Ecology Research*, 57(3), 395-406. doi:10.6115/fer.2019.029
- Yooguem museum. (2010). *중국 도용을 통해 본 미인과 복식: 아름다운 여인들* [Beauty and costume through Chinese terracotta figurines: Beautiful women]. Seoul: Misul Munhwa Publishing.
- Zhao, H. (2023). *Research of design using the image of female in the Tang dynas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osuk University, Wanju.
- Zhaoling museum. (2006). *The Tang mural paintings at Zhaoling mausoleum*. Beijing: Wenwu Publishing.
- Zhou, T. (2008). *中國服飾簡史* [A brief history of Chinese clothing]. Beijing: Chinese Publishing.
- Zhou, X., & Gao, C. M. (1997). *中國歷代婦女裝飾* [Chinese women's decoration throughout the ages]. Shanghai: Shanghai Xuelin Publishing.

Adornments on Women's Forehead during the Tang Dynasty

Yim, Lynn⁺

Concurre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 Kwangju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the Tang Dynasty, which had cultural contact with many immigrant people through the Silk Road based on its strong national power, and to analyze the inner meaning of the unique forehead decoration in exotic makeup. As a method of study,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history of the Tang Dynasty and makeup customs of the period and an analysis of artifacts such as murals, paintings, and terracotta warriors were combin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ehead adornment was one of the most exotic and flamboyant forms of makeup culture at the time, and the types were classified into changes in Aekhwang (yellow lacquer on the forehead), Hwajeon, hairline, and Gun through murals and visual data. Second, the form and patterns of forehead adornment were analyzed. Aekhwang refers to a cosmetic technique of applying yellow paste onto the foreheads of plated Buddhist statues. Hwajeon involves drawing dots or other patterns on the center of the forehead, or pasting feathers, gold leaf, mother-of-pearl, etc. on it. The colors were blue, red, black, white, yellow, and green. Hairlines changed from convex, through forked and curved to concave. Gun was associated with transparent forehead covering. It was a long, rectangular piece of cloth wrapped around the forehead and was often seen on cross-dressing maids. Third, the internal meaning of women's forehead coverings at the time was analyzed in terms of religiosity, autonomy, and hybridity. Specific meanings of forehead coverings related to Buddhism, autonomy based on women's education and status, homogenization of heterogeneous cultures, and hybridity through localization were presented. Therefore, this study has rarity value in that it is an approach to the women's forehead decorations in the Tang dynasty, which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o far, and it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the internal meaning of them in detail.

Key words : Tang period, forehead decorations, cosmetic culture, buddhism, hybridity